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부활 제4주일(성소주일)
제30권 22호(다해) 2010 · 4 · 25

[묵상]

양을
돌보는
요셉

마르크 샤갈
<샤갈 성서
메시지 미술관,
니스, 프랑스>

저희를 양이라 부르시고
안전한 울타리를 치시고
행여 길 잃을세라
노심초사 돌보시는,
머리카락 수까지 세어두신
저희의 모두를 아시는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나를 따른다고 하셨으나
어디에서 어떻게 들려오는지
어떤 것이 따르는 것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양

목자와 양은
서로를 알고 서로를 따름으로써 소통하듯
예수님과 저희의 소통은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행함이니
착한 목자를 자랑스럽게 하는
착한 양들이게 하소서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 요 일	저 녁 미 사	오후	7:30
목 요 일	아 침 미 사 (레지오)	오전	9:00
	저 녁 미 사	오후	7:30
금 요 일	아침 미 사	오전	8:30
토 요 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오전	8:30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후	7:00
주 일	아 침 미 사	오전	7:30
	학생미사(영어)	오전	9:30
	낮 미사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 요 일	배론 청년회 성경공부	오후 7:30
수 요 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오후 2:00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오전 10:00
	레지오 마리애	오후 8:00
목 요 일	병자영성체 (1째주)	오전 9:30
	성 시 간 (첫목요일)	저녁 미사후
	레지오 마리애	오전 10:00
	성령 기도회	오후 8:00
	예비자 교리반	오후 8:00
금 요 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오전 9:30
	M.E. Sharing(3째주)	오후 7:00
	울뜨레아 (4째주)	오후 8:00
토 요 일	유아세례 (짝수달 4번째 토요일)	오후 6:00
	배론 청년모임	오후 5:00
주 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애	오전 중
	글로리아 성가대	오전 9:00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오후 1:00
	2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앙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오후 1:00
	• 꾸리아	오후 2:30
	3째주 – • 빈첸시오회	오전 9:00
	• 행사의 날	
	4째주 – 가정의 날 / 사목회	오후 1:00
	첫째/셋째주–대학부(PACEM)	오후 2:00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밥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 무 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박준구 요한
	(생)허이준 가정, 김욱 안토니오&행선 율리아나 가정
주 일 낮 미사	(연)박준구 요한, 이금순 마리아, 이영자 마리아, 고준희 제임스, 이현호 요한, 김종환 야고보, 엄은섭 도로테오, 김미카엘&이마리아, 김시형 시릴로, 정형두 바오로, 김상억 베드로, 한우석 요셉
	(생)김준호 프란치스코&써니 클라라, 김형순 다니엘, 최현찬 안드레아&도로테아 가정, 장정진 베로니카, 천광락 야고보&남숙 리디아 가정, 신효철 가브리엘, 이마르코, 배기엽 클레멘스&난군 세레나 가정 김혜영 사비나&김은영 젬마,김경숙 마리아, 문 밥티스타 수녀, 박상대 마르코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Acts of the Apostles) 13,14.43-52
화 답 송	⊙저희는 당신의 것, 당신 백성이어라. 기르시는 그 양떼이어라. <전례성가 72, 부활 제4주일 다해> ○온 누리 반기어 주님께 소리쳐라. 기쁨으로 주님 섬겨 드려라. 춤추며 당신 앞에 나아가라.⊙ ○고마우심 노래하며 당신 문으로, 찬미하며 들어가라, 그 뜰 안으로. 주님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찬양하라.⊙ ○주님은 하느님 너희는 알라. 저희를 내셨으니, 저희는 당신의 것. 당신 백성이어라, 기르시는 그 양떼이어라.⊙ ○주님 좋으시다, 영원하신 그 사랑. 저희는 당신의 것, 당신의 진실하심, 세세에 미치리라.⊙
제 2독서	요한 묵시록(Revelation) 7,9.14ㄴ-17
복 음 환호송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복 음	요한(John) 10,27-30
영성체송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 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64	164
봉헌	268	243
성체	내가 살아가는 이유	307,295
파견	165	166

2. 나는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 생명에 관한 그리스도교의 메시지 -

▶인간 생명의 불확실성 안에서, 예수께서는 생명의 의미를 완성으로 이끌어 가신다.

분명히 올바른 사람들은 그분을 받아들인다. 그들은 "예"라고 한 마리아의 즉각적이고 기쁨에 찬 응답(루카 1,38 참조)에 호응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세상으로부터의 거부도 있었다. 세상은 증오심을 키우며, "아기를 찾아 죽이려"(마태 2,13) 한다. 세상으로 들어온 이 생명의 신비의 성취에 대해서 세상은 무관심하며 냉정하다. "여관에는 그들이 머무를 방이 없었다."(루가 2,7)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위협과 불안정, 다른 한편으로는 하느님 선물의 능력 사이의 대비에서, 나자렛의 가정과 베들레헴의 구유에서부터 뻗어 나오는 그 영광이 더욱더 밝게 빛난다. 그곳에서 태어난 이 생명은 전 인류를 위한 구원이다.(루카 2,11 참조)

예수께서는 삶의 모순과 위험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셨다. "그분께서는 부요하셨지만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께서 가난해지심으로써 여러분은 오히려 부요하게 되었습니다."(2고린 8,9) 바오로가 말하고 있는 가난은 신적인 특권을 박탈당했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삶의 가장 낮고 가장 약한 조건들을 취했다는 것을 말한다.(필립 2,6-7 참조)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 동안 이러한 가난한 삶을 사셨다.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필립 2,8-9)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봉헌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새생명의 원천이 되므로(요한 12,32 참조), 그분께서는 바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모든 광채와 가치를 드러내 보여주신다.

예수께서는 모순 속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그리고 바로 당신의 생명을 잃는 그 일을 겪으시는 동안 당신의 생명이 성부의 손에 달려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신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성부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다.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루가 23,46) 그 영혼이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인간 생명을 취하시고 그것을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삼으셨으니 그 인간 생명이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느님의 영광이 인간의 얼굴에서 빛난다

34). 생명은 언제나 선한 것이다. 이것은 본능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것이며, 체험으로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인간은 왜 생명이 선한 것인지 그 심오한 이유를 깨달으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다. (◆계속)

부르심 = 우리 존재 이유!

이 세상의 만물은 하느님의 부름을 받아 존재하게 됩니다. "빛이 생겨라!" 하고 하느님께서 부르시자 빛이 생겼습니다.

부르심을 받아 존재하게 된 이 세상의 만물은 아무런 목적 없이 생겨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빛은 세상의 어둠을 밝힐 사명을 지녔습니다. 빛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을 밝혀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명을 지닌 이 세상의 만물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면서 자기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빛을 내는 태양은 '참 빛'이신 하느님을 자신의 빛으로 세상에 드러냅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수행하며 존재하는 이세상의 만물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창세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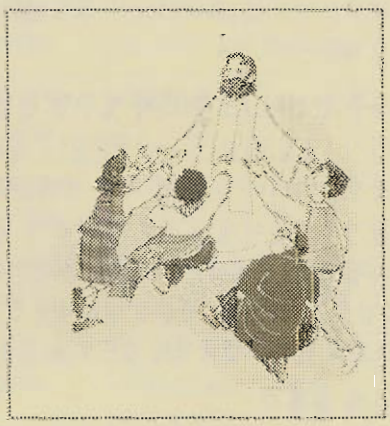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요한 10,27) 세상의 만물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의 양이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신 하느님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소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존재 이유'를 확인해봅니다. 나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나게 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따라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 마음속 깊이 부르시는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막지 말아야겠죠.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각자의 처지에 맞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이유는 많을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따로 하고 싶은 일이 많다고…, 능력이 안된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능력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뿐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무엇을 하라고 하시나요? 세상 걱정을 '잠시' 접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잠시' 예수님께 시간을 내드립시오. 이 '잠시'는 '영원'과 연결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 구상 시인 -



오늘도 신비의 샘인 하루를 맞는다. / 이 하루는 저 강물의 한 방울이 / 어느 산골짝 옹달샘에 이어져 있고 / 아득한 푸른 바다에 이어져 있듯 /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하나이다. / 이렇듯 나의 오늘은 영원 속에 에에져 / 빠로 시방 나는 그 영원을 살고 있다. / 그래서 나는 죽고 나서부터가 아니라 / 오늘서부터 영원을 살아야 하고 / 영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 마음이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한다. / 마음을 비운 삶을 살아야 한다.

♦선희준 루도비코 신부 / 사제평생교육원

이번 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문재원 클로틸다	남성철 베네딕도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이상철 크리스토퍼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이희경 크리스티나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도렌스 북 1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천남숙 리디아	채승희 에스더
제1독서자	변슬기 로사리아	김교복 레오	이제용 안드레아
제2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김금자 데레사	이해선 안젤라
제물봉헌자			도렌스 서 II반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5 월
성모성월

◈성모신심 미사 : 5월1일(토) 8:30am

◈성모의 밤 : 5월8일(토) 특전미사 후 성전
- 각 단체 및 개인의 꽃 봉헌과 초 봉헌이 있습니다.
- 준비물 : 묵주, 개인초, 가급적 한복착용
- 문의 : 김명숙 루실라 전례부장

◈ 양업회 주관 요셉/안나회 초청 바비큐 파티
- 일시 : 오늘 주일(25일) 오후 4시
- 장소 : 본당 친교장
- 대상 : 요셉회/안나회 소속 어르신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문의 : 김찬구 요한 양업회장 ☎(310)701-6343

◈ 부활 세례자 첫 고해
- 일시 : 4월29일(목) 오후 8시
- 대부모님들은 대자녀들이 고해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 남가주 한인M.E. 제65차 첫주말 본당에서 4쌍 참가
- 일시 : 4월30일(금)~5월2일(주일)
- 장소 : 마리아 & 요셉 피정 센터(P.V.)
- 참가부부들에게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바랍니다. ♡박상준 다미아노 & 정현숙 세레나 ♡김용 스테파노 & 박문주 엘리사벳 ♡조윤영 아오스딩 & 조희숙 안젤라 ♡금영도 베드로 & 김유미 크리센시아

◈ 자동차 축복식
- 일시 : 5월2일(주일) 오후 1시
- 장소 : 사제관 앞마당
- 새로 자동차를 구입해서 축성을 받기 원하는 교우들은 이날 점심식사 후 자동차와 함께 사제관 앞마당으로 모이세요.

◈ 최경용 베드로 신부님 성모신심 특강안내
- 일시 : 5월4일(화) 오후 8시 '성모신심과 활동'
  5월5일(수) 오후 8시 '성모신심과 본당 활성화'
- 성모신심의 박사이신 최경용 신부님의 특강에 참여하시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7회 백삼위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
- 5월16일(주일), 낮미사(오전 10시) 후 운동장
- 주최: 사목회 • 주관 : 대건회
- 구역별 팀구성 : 청팀-토런스 동, 서, 북구역
  백팀- 토런스 남, 하버/카슨, P.V.구역
- 식사 : 각 구역별로 준비, 안나/요셉회는 하버/카슨에서 준비
- 종목 : 피구, 오재미던지기, 어린이축구, 릴레이, 줄다리기 외-
- 기념품 증정과 다양한 일상생활용품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사에 신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문의 : 이크리스토퍼(796-6960), 김요한(740-1501)
  김스테파노(926-2248), 현아오스딩(594-9472)

◈ 안나/요셉회 봄철 온천 관광
- 일시 : 5월25일(화) 7:30am 출발 레이크 엘시노 온천장
- 55세 이상 형제, 자매님들의 신청 바람. 56명 정원
- 회비 : 교우 $20, 외부인 $30
- 준비물 : 수영복, 따뜻한 겉옷, 타올, 샌들
- 신청 : 이영희 카타리나 안나회장 ☎(310)518-1736
  김금자 데레사 총무 ☎(310)539-9526

◈ 성모회 아이티 지진피해자에 $2000 전달
- 김치판매로 얻은 수익금 $2000을 가톨릭 구호기금 재단을 통해 아이티 지진피해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 백삼위 서예반 개강
- 일시 : 매주 주일 오후 1시30분~4시, 2층 유아실
- 회비 : $40
- 강사 : 일호 박태홍(한국예총 미국 서예가협 회장)
- 문의 : 이명렬 라파엘 ☎(310)749-0278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4월25일(주일) : 토런스 동2반(멸치콩나물우거지국 $3)
- 5월2일(주일) : 대학부(PACEM 기금모금 맛있는 모밀국수와 튀김 판매 $3, $5)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숙경 강지혜 구자운 권오상 권태만 김관기 김광자 김교복 김미성 김병학 김선영 김양금 김 용 김정애 김정엽 김형순 남성철 민경근 박선희 박순자 박써니 박인식 박주현 반비오 배기엽 배태임 신대철 안민수 안태갑 육근주 윤성순 이경태 이귀란 이남현 이상규 이용식 이우성 이재정 이지윤 장정진 정동호 정상봉 정순석 정열모 조윤영 최미나 최현찬 한연만 한길선례 **합계 : $5,470**
미사헌금 : $2,870.51	

성전헌금	강숙경 구자운 권오상 권태만 김관기 김광자 김교복 김미성 김병학 김양금 김정엽 김형순 남성철 민경근 박선희 박순자 박써니 박인식 박주현 반비오 배기엽 신대철 안민수 안태갑 육근주 윤성순 이경태 이귀란 이상규 이용식 이우성 이일길 이재정 장정진 정동호 정상봉 정순석 정열모 최미나 최현찬 한연만 한길선례 **합계 : $4,050**
감사헌금 : 김순희 민기남	

공지사항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9~ 12학년 * 기간 : 7월23일(금)~25일(주일)
- 신청 : $175(4월25일까지), $185(5월30일까지), $195 (마감이후) *마감: 5월30일
- 참고 웹사이트 : www.all4godcatholic.com
- 접수: 주일학교 *문의 : 강아네스 교장☎(310)780-0369

◈ 주일학교 견진성사
- 리허설 : 5월14일(금) 오후 7시30분~9시
- Reflection : 5월20일(목) 오후 7시
- 견진성사 : 5월21일(금) 오후 7시
- 대상 : 주일학교 견진성사 대상자(10학년 이상)
- 장소 : St. Margaret Mary(25511 Eshelman Av. Lomita)
- 견진성사자와 대부모는 위 3일일정에 꼭 참여해야 합니다.

◈ 주일학교 첫영성체 예식
- 일시 : 6월6일(주일) 오전 11시 미사중
- 첫 고해성사 및 리허설 : 6월5일(토) 오후 3시
- 대상 : 주일학교 2학년~6학년, 첫영성체 받지 않은 어린이
- 신청서: 편지로 우송됨

남가주 소식

◈ 서양화가 김윤진 카타리나 개인전
- 일시 : 5월1일~21일, 오프닝 리셉션 1일(토) 오후 3시
- 장소 : lee & lee 갤러리(3130 Wilshire Bl. LA)
- 카타리나 아일랜드를 주제로 한 대소작품 40여점 전시
- 김윤진 자매는 백삼위 본당 교우입니다.

◈ 바람의 딸 '한비야' 초청 강연회
- 일시 : 5월13일(목) 오후 7시30분
- 장소 : LA 성 바실 한인천주교회(윌셔+킹슬리)
- 주관 : 북미주한인사목사제협의회
- 후원 : 가톨릭신문/방송, 중앙일보/방송, 한영매일미사
- 티켓 : 각본당 사무실. 선착순 배부(무료)

◈ 제9회 남가주 M.E.친선골프대회
- 일시 : 5월18일(화) 오후 1시 티오프(등록 낮12시)
- 장소 : Moorpark Country Club ☎(803)532-2834
  11800 Championship Dr. Moorpark, CA 93021
- 회비 : $100(중식 및 석식제공)
- 시상 : 메달리스트, 장타상, 근접상, 홀인원, 부부상 등 다양
- 문의 : 이남현 막시모 ☎(213) 272-3598

이번 주 단체 모임

4월 사목상임위	오후 1시

다음 주 단체 모임

구역장/반장 회의	오후 1시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써니 클라라	(310)612-8840
차 장	박희자 마리아	(310)325-6982
차 장	이경수 헬레나	(310)972-919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남명자 데레사 328-0847	지정완 안젤라 972-8292 4/10(토) 오후 7시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김찬구 요한 782-7437 4/10(토) 오후 7시 성당
	3	신덕례 데레사 494-1390	신덕례 데레사 494-1390 4/15(목) 오후 8시10분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7-4749	정종미 클라라 377-4749
토런스 서 박정애 소화 데레사 218-7340	1	김순희 모니카 328-1817	이병찬 543-8084 4/9(금) 오후 7시30분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박야고보&세실리아 619-7763 4/10(토) 오후 6시
	3	장정진 베로니카 803-7798	김미성 미리암 798-6540 4/13(화)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325-6982	1	최옥희 데레사 378-4183	엄영숙 마리아 373-5662 4/16(금) 오후 7시30분
	2	이경수 헬레나 972-9193	양희숙 마리아 325-6982 4/14(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이혜선 안젤라 793-7733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4/9(금) 오후 7시30분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권병연 리디아 938-3255	1/2	최미열 클라라 895-8624	최미열 클라라 895-8624 4/17(토) 오후 7시
	3	대건회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건회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1/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유영균 우르바노 985-2882 4/10(토) 오후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최재은 베드로 997-9006 4/9(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김병학 안드레아 544-4807 4/9(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796-6763	이문종 바오로 938-4529 4/16(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유혜영 클라라 377-2806 4/13(화) 오전 10시30분

남가주 청년연합회 체육대회 현장을 가다

4월 열 여덟 날 (일요일) 백삼위 성당 궁자안 뒤이 (잡초가 찌끔섞인 것을 요로게 표현함) 구장에서 열린 청년연합회 체육대회 현장을 청년들 표현방식으로 보도합니다.

12시 30분 쩨깍 쩨깍

와 ~ 축구장이 있네 ~ 와 ~ 파킹장이 널널 하네 ~올때 마다 부럼네... 부자 성당이라 다르네...준비 빵빵하게 했네.. 백삼위 청년, 대학생덜,어제 토요일부터 와서 텐트치고 음향시설하구 그랬데며? 땀들 쫌 흘렸겠는데? ㅋㅋㅋ

백삼위 성당에 모인 155명 청년들의 와글 와글 소리.

1시 정각

어 --- 왔어? 아그네스 성당? 드디어 다 왔다. 9 개 단체.... 그럼 됐다. 시작 하자 ! 감사하게도 장소를 허락하여 주신 백삼위 성당의 이마르띠노 신부님의 시작기도가 있겠습니다.

성부와 ~ 아멘. 환영합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마니 마니 모인 것을 보니 기쁘네요.... 재미있게 자 ~ 알 ~ 행복하게 지내다가 가세요. 성부와 ~ 아멘.

신부님의 시작기도와 함께 Ice break 시간... 처음보는 얼굴들이 많으니.. 쫌 서먹 서먹... 왔다리 갔다리... 조를 나누며 약간 쫙꼼 몸과 마음이 풀리는 시간.

1시 30분

냠 냠 냠 (여자들 먹는 소리)쩝 쩝 쩝 (남자들 먹는 소리)찹 찹 찹 (여자들 씹는 소리) 우걱 우걱 우걱 (남자들 되새김 하는 소리덜)얘 ~ 오늘은 쫌 먹어둬라.. 힘낼려면 먹어둬 ~ 다이어트는 무슨... 아홈...먹구 나니 졸리네...

점심 도시락, 물, 소프트 드링크 로 식사를 끝낸 청년들.

2시

ㅎ ㅎ ㅎ 쌀 쌀 쌀 ㅋㅋㅋ 헉 헉 힘들다 나이 드나…. 우리팀 이겨라 쩨내림 져라 우우우..힐 ~ 신발 벗겨졌당…. 어머... 쩨 ... 잘 뛴다 킹 카가 한 운동도 하네 ㅋㅋㅋ 나 찜했어 ㅋ 야 ~ 쩨 ... 넘 ~워엽지 않니? 머리 눌릴까봐 모자도 안 쓰고 ㅋㅋㅋ 와 와 와 ... 우짠다 우쩌 .. 으 하 하.. 너무 가까운 거 아냐? 하 하 하

8 개 팀 으로 나뉘어 인간 숫자 만들기, 2인 3각 경기, 빼빼로 릴레이 경기,오렌지 먹고 회파람 릴레이 경기. 줄다리기 경기로 가까워진 청년들. 청년들은 같이 땀흘리고 같이 먹으면 금새 친해진다는 진리를 확인하는 현장.

5시 25 분

전화번호 좀 주세요 톡 톡 톡 ….번호 좋네요 톡 톡 톡…. 하루 넘 ~ 재미 있었다 이런 만남 쫌 자주 있으면 안되나 ?우리성당에서 다음달에 이런…. 행사있어요. 꼭 오세요…. 우리 파정있어요…. 우리 성령기도회가 있잖아요…. 백삼위 성당 공기 넘 조오타 바닷가 냄새…. 와글 와글…. 수고들 마니 마니 하셔쩌요…. 성부와 ~ 아멘. 찰카닥.한번 더 찍을께요.

서로들 친해 진 청년들 …. 각 성당과 신심단체들의 활동을 서로 교환하며…. 또한 서로 마음이 통한 남녀들 간에 여기 저기서 전화번호를 교환하며… 고등부 지도 관계로 늦게 도착하신 연합회 최 신부님과 하루종일 같이 계셔주신 바실성당 수녀님 그리고 청년연합회 임원단들의 마침기도.

6시 15분

쫙 쫙 덜커덩 쓱 쓱

마지막 청소까지 끝내고 9 개 단체 청년들이 기쁘게 하루 즐기고 간것에 흐뭇해 하는 + 작년 9월. 250명 참석, 연합회 주최 성경 퀴즈 대회를 백삼위성당에서 성공리에 치르고 남가주 사제협의회에서 신부님들께, 청찬을 아주 ... 주욱 ~오래 오래 ~ 많이 받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 백삼위 청년 대학부 청년들! :)

청년 대학생들은 미래교회의 주인입니다.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교회 발전과 비례 할 것입니다. 많으신 기도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5월 23일 (일) 에 있을 영어권 청년회 첫 모임에 자녀분들을 꼭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 최진수 예우세비오 /남가주 청년 연합회 고문
사진 : 김낙기 바오로 / 백삼위 대학부 회장